



러프 탈출 '완도산 탱크' 최경주가 영국 샌드위치의 로열 세인트 조지스 골프장에서 14일 개막한 브리티시 오픈 1라운드 3번 홀에서 러프에 빠진 공을 쳐 내고 있다. /연합뉴스

호랑이 일요일엔 펄펄 난다

11승 3패 압도 ... 선취점 내면 승률 77%

■ KIA의 승리 공식

KIA는 올 시즌 팬들로부터 '선데이 타이어즈'라는 애칭을 얻었다. 일요일 경기에서 유난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생긴 별명이다. 올 시즌 14번의 일요일 경기에서 KIA는 11승3패를 거두며 0.786의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일요일에 강한 KIA는 일요일 명승부 열전도 써내려가고 있다. 트레비스의 한국무대 첫 완봉승이 나왔던 경기와 SK를 상대로 연장전 끝내기 삼중살을 만들어 냈던 경기도 일요일에 펼쳐졌다. 또 윤석민에 이어 로페즈가 구원투수로 등판을 해 SK를 상대로 2-1 역전극을 펼쳤던 6월5일 경기 등 일요일에 얻은 11승에서 5승이 역전승이다. '일요일=승리'를 예고하는 KIA지만 토요일은 승률이 좋지 못하다. 올 시즌 토요일 성적은 5승9패, 유일하게 5할 밑도는 0.357의 승률을 채우는데 그치고 있다. 2점차에서도 강한 모습이다. KIA는 2점차의 경기에서 6승1패의 전적으로 0.857의 승률을 보이고 있다. 선취점을 가져온 경기도 KIA의 승리 공식이 적용된다. KIA가 선취점을 가져온 경기에서 성적은 35승11패, 0.766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재미있는 승리 공식도 있다. KIA는 야구 팬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단독경기에서 승률 100%를 과시하고 있다. KIA는 올 시즌 비를 피해가면서 가장 많은 80경기를 소화했다. 이중 4경기는 다른 구장의 경기가 모두 취소되면서 단독으로 진행된 경기였다. 6월 29일, 7월 3·10·13일 야구팬들의 관심 속에 치러진 경기에서 KIA는 모두 승을 가져왔다. '안치홍의 실책=승리'라는 공식도 있다. 12일 두산과의 경기에서 올 시즌 최소 실책(35개)을 자랑했던 KIA는 4개의 실책을 남발하며 어려운 경기를 펼쳤다. 최근 호수비로 주목받았던 안치홍의 뜻밖의 실책이 시작이었다. 2-0으로 앞선 2회 초 무사 1루에서 윤석민의 병살타성 타구를 처리하던 안치홍이 공을 놓쳤고, 페이스가 흔들린 트레비스의 실책과 패스트 플레이 이어지면서 경기는 순식간에 2-2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후 혼전 양상으로 전개됐던 경기에서 KIA는 상대 실책으로 역전에 성공하며 5-4로 간신히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안치홍의 실책 승률도 100%를 유지했다. 6월 4일 SK와의 원정 경기에서 9회말 대수비로 들어가자마자 실책으로 2사 만루의 위기를 만들기도 했던 안치홍은 올 시즌 6번의 실책을 기록했지만, 이 6경기는 모두 승리로 마무리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0억 팔' 한기주 1799일만에 선발 KIA의 '10억 팔' 한기주가 14일 광주구장에서 열린 두산과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했다. 2006년 8월 9일 한화전 이후 5년 여(1799일)만의 선발 출전이었다. 1회와 2회는 무실점으로 막았지만 3회 들어 2실점 한 뒤 4회부터 마운드를 차정민에게 넘겼다. 30인방 2피안타 3탈삼진 3사구 2실점. /연합뉴스

상금 15억 '클라레 저그'를 잡아라

브리티시 오픈 개막 ... 한국 선수 8명 출전
최경주 출발 순조 ... 매길로이 우승에 관심

'클라레 저그'(사진)를 품어 나선 최경주(41·SKT)의 출발이 관망된다. 올해로 151번째, 횡수로는 140번째를 맞는 '세번째 메이저' 브리티시오픈(총상금 500만 파운드) 1라운드. 최경주는 14일 오후(한국시간) 일찌감치 경기를 시작해 3번홀(파3)에서 보기를 범했지만 9번홀(파4) 버디로 이를 만회해 이븐파로 스코어를 지고 있다. 대다수 선수들이 속속 티오프하고 있는 오후 7시 현재 공동 12위. 보습비가 내리는 속에서 잉글랜드 샌드위치의 로열 세인트 조지스 골프장(파70·7211야드)에서 시작된 1라운드에서 첫 티샷을 한 선수는 제리 캘리(미국)다. 캘리는 1번홀(파4)에서 보기, 2번홀(파4)에서 더블 보기를 적어내 순탄치 않은 경기를 예고했다. 대회조직위원회는 강풍이 불 경우 2라운드부터는 티박스를 앞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부상으로 불참한 가운데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는 어니 엘스(남아공), 리키 파울러(미국)와 동반 플레이에 나섰다. 이 대회에는 최경주 외에 양용은(39·KB금융그룹), 김경태(25·신한금융그룹) 등 8명의 한국 및 재미교포 선수가 우승자에게 주는 은빛 주전자 '클라레 저그'의 새 주인이 되고자 도전장을 던졌다. 이 밖에 '영건' 노승열(20·타이틀리스트)과 배상문(25·우리투자증권), 황중곤(19), 재미교포 나상욱(28·타이틀리스트)·앤서니 김(26·나이키골프)이 출전했다. /연합뉴스

울스타 팬사인회 22·23일 잠실구장서
스포츠라이미ング 월드컵 김자민 리드 종목 우승

프로야구 30년을 대표하는 레전드 울스타와 2011년의 울스타들이 22·23일 잠실구장에서 팬사인회를 갖고 팬들과 만난다. 이번 팬사인회는 프로야구 3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팬 페스티벌'에서 진행되며 레전드 울스타들은 22일 오후 2시 잠실구장에 마련되는 특별무대에서 사인회를 연다. 야구인·연인·팬투표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이만수SK 퓨처스 감독을 비롯해 선동열 전 삼성 감독, 한대화 한화 감독, 장효조 삼성 퓨처스 감독 등 프로야구30년 레전드 울스타 베스트10 전원이 참가한다. 2011 프로야구 울스타전에 참가하는 울스타 베스트10과 감독 추천 선수를 포함 총 44명 선수 전원이 참가하는 팬사인회는 22일 오후4시, 23일 오후 2시 진행된다. 입장 티켓은G마켓(www.gmarket.co.kr) 및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예매하거나 행사 기간 중 현장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요금은 성인 3000원, 중·고생 2000원, 초등학생 1000원, 장애인과 군·경·노인(만65세 이상) 및 미취학아동은 무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스포츠라이미ング(안벽동반)의 '여제'로 불리는 김자민(22·노스페이스)이 올 시즌 처음으로 열린 자신의 주종목 월드컵에서 우승했다. 김자민은 14일(한국시간) 프랑스 샤모니에서 국제스포츠라이미ング연맹(IFSC) 주최로 진행된 월드컵 리드 경기에서 캐롤라인 샬라지니(프랑스)·안젤라 이터(오스트리아)·미나 마르코비치(슬로베니아)와 함께 1위에 올랐다. 리드는 올라갈수록 난도가 높아지는 인공암벽에서 누가 더 높이 오르는지를 따지는 종목이다. /연합뉴스

아름다운 결혼의 시작 신양파크 호텔과 함께

Cool Wedding Event

웨딩/특전
허니문룸 1박
조식2인(웨딩 전일 또는 당일)
온돌 폐백식 / 폐백용품제공
아이스카빙 제공

웨딩 축하 케이크 제공
꽃길 서비스
특수 연출 서비스
신양 허니문 카드 증정

Special Rate

뷔페 ₩29,000 / ₩33,000
양식 ₩33,000 (스프+샐러드+스테이크(안심)+디저트+커피)
₩35,000 (에피타이저+스프+샐러드+스테이크(안심)+디저트+커피)

이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 눈부심과 설렘으로 다가오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기간 | 2011년 7월 1일 ~ 9월 30일 예약문의 : Tel. 062)228-4711~2 / 062)221-4101~3